

Road to Sustainability

2026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 Summary
(FY2025)

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요약본으로,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성과와 전략을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Full Report)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보고서는 국내 본사, 생산 공장, 연구소, 서비스 및 물류센터를 포함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부문(자동차 및 부품 제조, 판매, 정비 등)과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등 해외 종속회사를 보고 범위로 하며, 보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부 성과는 2026년 상반기를 포함)

발행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발행일	2026년 6월
보고서 제작(문의처)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기획팀



지속가능성 웹페이지 (모바일)



2026 지속가능성 보고서 Full Report (PC)

미래 예측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

본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 아닌 미래와 관련된 사실을 서술하는 '미래 예측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은 주로 "예정이다", "추진하다", "기대하다", "목표", "전략", "추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 및 전동화 목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목표, 대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약속 및 향후 사업 전략과 관련된 진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미래예측진술은 발간일 현재 당사가 이용 가능한 정보 및 합리적인 가정과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결과가 해당 진술과 일치한다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 권유 또는 특정 투자 판단을 위한 자료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예측 진술과 지속가능성 성과 데이터의 추정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 변화, 시장 수요 변동, 원자재 가격, 공급망 불확실성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내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미래 예측 진술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및 데이터는 측정 방법론, 가정 또는 추정에 기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또는 규제 의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 사건 등으로 인해 본 보고서의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Contents

CEO Message	03
Hyundai at a Glance	05
Sustainability Highlights	06
Focus Areas	
기후변화 대응	07
고객경험 혁신	09
지속가능한 공급망	10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11
CSV 이니셔티브	12

CEO Message



Jose Munoz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 아래,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진보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흔들림 없는 실천과 결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맺은 결실입니다.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 아래, 당사는 전동화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에는 혁신과 성장이 고객,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변치 않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은 과감한 결단과 엄격한 기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경영 전반에서 이러한 철학을 묵묵히 실천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첨단 기술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조와 공급망, 임직원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우리의 핵심 과제들은 기술 혁신, 동반 성장, 그리고 장기적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현대자동차의 진화와 분리될 수 없는, 진화 그 자체입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당사가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결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 또한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동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확고한 의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운송 부문,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동화’를 미래 모빌리티로의 진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 당사의 글로벌 전동화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100만 대에 육박했고, 순수 전기차(EV) 판매 역시 26% 성장한 27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동화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시장을 재편하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현대자동차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이 같은 장기적 변화에 발맞춰 제품, 생산, 기술 전반에 걸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7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 차종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하고, 북미 시장에서는 1회 충전으로 6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를 선보이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5년 현대자동차는 유럽, 북미, 인도 지역의 전 사업장에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거나 재생 전력 인증 등을 통해 상쇄함으로써 해당 권역 RE100 달성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HMGMA)은 그룹 차원에서 147MW 규모의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CEO Message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리더십 확보

전동화는 현대자동차가 그리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여정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서, 현대자동차는 더 넓은 영역으로 모빌리티의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소 생태계 구축,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플랫폼 고도화를 비롯해, 장기적이고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필수적인 AI와 로보틱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기술 플랫폼인 ‘플레오스(Pleos)’를 기반으로 SDV 및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여,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객의 삶과 연결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배터리 기반의 전동화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한계가 있는 산업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연료전지 트럭은 이미 북미와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상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사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 ‘HTWO’의 기술력은 자동차를 넘어 선박, 발전 등 다양한 산업으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2030년까지 단행될 총 125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특히 이 중 50조 5천억 원은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정의할 핵심 기술과 역량 확보에 집중 투입되어, 당사가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뢰의 기반, 제품 책임과 공급망 관리

현대자동차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당사를 선택해 주신 모든 고객과 그 가족분들의 신뢰를 얻고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뛰어난 경제성과 실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어떠한 순간에도 전적으로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을 완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J.D. Power 신차품질조사(IQS)에서는 2022년 12위였던 순위를 2025년 2위까지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주관 충돌안전평가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총 21개 차종이 최고 등급(TSP 및 TSP+)을 획득하며, 2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그룹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중 16개 차종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개발, 생산, 품질 등 전 부문에 걸쳐 매일같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고 헌신해 온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나아가 고객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차량이 도로를 달리기 훨씬 이전 단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차량의 품질을 넘어, 엄격한 준법정신과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의 단순한 의무를 넘어,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지켜 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당사는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과 관련하여 광산 및 제련소 현장 실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속가능성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시간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47개 사업장에 대한 인권 실사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까다로우며, 때로는 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을 품은 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타협이나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당사의 가장 큰 자산, 임직원

이 모든 성과는 매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12만 명의 임직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5년 현대자동차의 조직문화 진단 점수는 3년 연속 상승했으며, 자발적 이직률은 최근 3년 새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TIME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기업’ 평가에서 글로벌 33위, 아시아 자동차 제조사 중 1위에 오르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분명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고성과 조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포용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나눔

현대자동차가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다져온 핵심 가치들은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도 고스란히 투영됩니다. 2025년, 소아암 퇴치를 위한 당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현대 호프온휠스(Hyundai Hope on Wheels)’는 캐나다와 멕시코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글로벌 누적 기부금 3억 2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숫자 이면에는 당사가 후원한 연구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입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기업의 책임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CSV 프로젝트인 ‘아이오닉 포레스트(IONIQ Forest)’를 통해 한국,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전 세계 13개국에 2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훼손된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양 환경 보전 단체인 ‘헬시 씨즈(Healthy Seas)’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개국에서 320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글로벌 해양 생태계 보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도약

현대자동차는 항상 ‘빠르게 실행하고(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며(미리미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을 강조하는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 아래,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우리의 지속가능경영에 비추어 보면, 규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투명성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으며, 현재의 성과에 결코 안주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혁신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만이 다가올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여정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주주, 고객, 파트너,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현대자동차가 힘없이 달려온 진정성 있는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현대자동차는 더 큰 혁신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Hyundai at a Glance

현대자동차는 1967년 창립 이래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여정의 중심에는 인류애(Humanity)가 자리해 왔습니다.

기술 발전은 인류를 향한 가치 위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신념 아래,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를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며 사람과 사람,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고 고객의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동화 모빌리티 확대, 수소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추진 등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여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며 인류를 향한 지속가능한 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개요

회사명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의선, 호세 무뇨스, 최영일
설립일	1967년 12월 29일	대표업종	자동차 제조업
상장일	1974년 6월 28일	상장시장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본사주소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신용등급

국내

AAA
한국기업평가

AAA
나이스신용평가

AAA
한국신용평가

해외

A3
Moody's

A-
S&P

A-
Fitch

생산 현황



판매 현황







● 국내 1,846,837 (45%)
● 해외 2,269,669 (55%)

● 국내 712,954 (17%)
● 해외 3,425,435 (83%)

* 2025년 도매 기준




글로벌 판매 상위차종

(단위: 대)

<p>투싼</p> <p>656,840</p> <p>ICE, HEV, PHEV 포함</p> 	<p>아반떼</p> <p>383,265</p> <p>ICE, HEV 포함</p> 	
<p>크레타</p> <p>370,724</p> <p>ICE, EV 포함</p> 	<p>코나</p> <p>304,653</p> <p>ICE, EV, HEV 포함</p> 	<p>산타페</p> <p>252,558</p> <p>ICE, HEV, PHEV 포함</p> 

파워트레인별 전동화 차량 판매 실적

(단위: 대)

<p>EV</p> <p>275,669</p> 	<p>HEV, PHEV</p> <p>679,017</p> 	<p>FCEV</p> <p>7,126</p> 
---	--	---

* 2025년 12월 31일, 도매 기준

Sustainability Highlights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차량 판매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 및 SDV 기반의 미래기술 고도화, 그리고 공급망·인권·이사회 책임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경영의 실행 범위를 전사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147MW
HMGMA 태양광 PPA 체결
(그룹사 전체 조달 기준)



자발적 이직률
53%↓
2022년 6.8% → 2025년 3.2%

전동화 차량 판매량
96.2만 대
전년 대비 27% 증가




미국 신차품질조사
J.D. Power IQS*
2위

* IQS(Initial Quality Study): 신차 구입 후 초기 90일간의 품질 불만 건수를 측정한 지표


조직문화 진단 결과
3년 연속 상승
(2025년 80.2점)

이사회 구성 다양성
여성 이사구성비 33%
전체 12명 중 여성 이사 4명

83%
LCA 수행 비율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A등급
Moody's, S&P, Fitch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대
선박, 발전, 항공 등 비자동차 부문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HTWO) 적용 확대




공급망 지속가능성 책임 강화
배터리 공급망 광산·제련소 실사 수행

공고민주공화국(코발트·구리) 및 인도네시아(니켈) 현장 실사 수행



충돌안전평가 최고 등급 16개 차종* 획득
IIHS TSP/TSP+ (그룹 합산 2년 연속 글로벌 최다)

* IIHS(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충돌 평가 최고/우수 안전 등급(TSP+/TSP) 획득 차종 수, 현대/제네시스 포함



북미·유럽·인도 내 전 사업장 **RE100 달성**
2027년 전 해외 사업장, 2045년 글로벌 RE100 달성 추진



글로벌 사업장 인권·윤리 실사 수행
생산·판매법인 및 연구소 등 47개 사업장 대상



글로벌 현대 호프온휠즈* 누적 기부금 **3.2억 USD**
* 소아암 연구 및 치료 지원 사회공헌

Hyundai Hope on Wheels



기후변화 대응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사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통해 주요 기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법·규제 변화 등으로 인한 거시적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요소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동화 모빌리티 제품 라인업 확대와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현대자동차는 파리협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45년까지 차량의 원소재 채취 단계부터 제조, 제품 사용, 폐기까지 전 밸류체인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1+2 배출량은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1.5°C 감축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목표로 SBTi(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소재 생산 및 부품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3 - Category 1)은 주요 협력사의 에너지 전환 지원 및 핵심 원소재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감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체 및 새시 부품의 주요 원자재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된 차량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3 - Category 11)은 연료·전력 생산 및 공급 단계(Well to Tank) 배출량과 고객의 차량 운행과정(Tank to Wheel)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cope 3 - Category 11은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2035년까지 6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SBTi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Scope 1	729,974	720,642
Scope 2 (지역 기반)	1,786,324	1,858,897
Scope 2 (시장 기반)	1,468,432	1,190,442
Scope 3	203,863,854	199,704,253

* Scope 1+2: 2024년 대비 2025년 산정 대상 해외법인 5개(HMGICS 등) 추가됨.
Scope 3: Category 2, 7, 14의 경우 2025년에 활동데이터, 배출계수, 산정방법론의 고도화가 진행되어 2024년 대비 배출량이 다소 크게 변동됨.

RE100 이행 계획

현대자동차는 주요 그룹사인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와 함께 2021년 전기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 가입을 선언하였고, 2022년 4월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RE100의 글로벌 목표인 2050년보다 앞선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국가별 재생에너지 수급 환경과 정부 정책 및 규제, 그리고 공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2045년까지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 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 적용을 목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할 것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환경이 우수한 북미, 유럽, 인도 지역에 소재한 전 사업장의 RE100을 달성하였으며, 글로벌 사업장 전체 사용 전기의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은 35%를 달성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제한적인 한국 제외 시, 해외 88% 달성)

사업장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국내에서는 2024년 444MW 규모의 직접전력거래(PPA)를 체결해 2025년부터 연간 약 610GWh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으며,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확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지분투자형 PPA, 자가발전 설비 운영 등 다양한 이행 수단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조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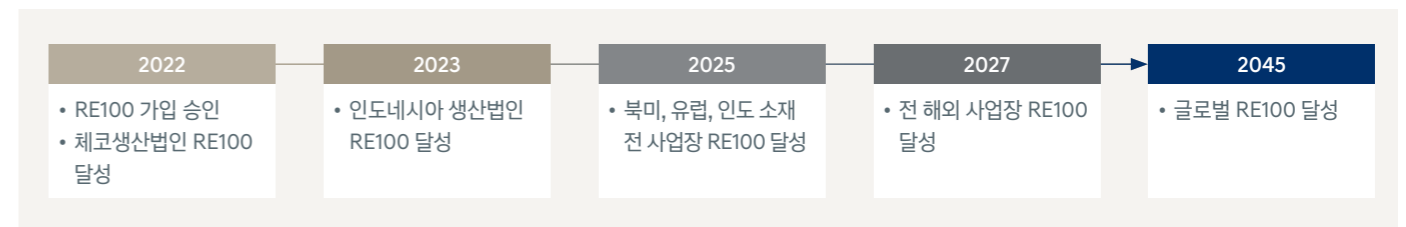
- **직접전력거래(PPA)**
- 444MW 규모 체결(2024년) → 2025년부터 연간 약 610GWh 재생에너지 도입
- **태양광 자가발전**
- 울산공장 약 15MW, 아산공장 9.3MW 운영 중
- 전주공장 2MW 운영 중, 약 5MW 추가 설치 예정 (2027년)

해외

- **지분투자형 PPA(인도)**
- 태양광·풍력 총 117.9MW 프로젝트 연계, 2025년 장기 PPA 및 지분 26% 확보 (첸나이공장)
- **장기 PPA(미국)**
- HMGMA 147MW 태양광 PPA 체결 (그룹사 전체 조달 기준)
- **태양광 자가발전**
- 인도네시아생산법인 11MW 규모 추가 설치
- 체코생산법인 5MW 규모 설치



RE100 이행 로드맵



기후변화 대응

전동화 전환 방향

현대자동차는 차량 사용 단계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전동화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파워트레인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및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 등 다양한 전동화 기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지역별 수요 및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전동화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330만 대의 전동화 차량 판매를 목표로 설정하고 글로벌 전동화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 체계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배터리 모듈화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배터리 종합 전략을 통해 전동화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성능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동화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별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파워트레인별 판매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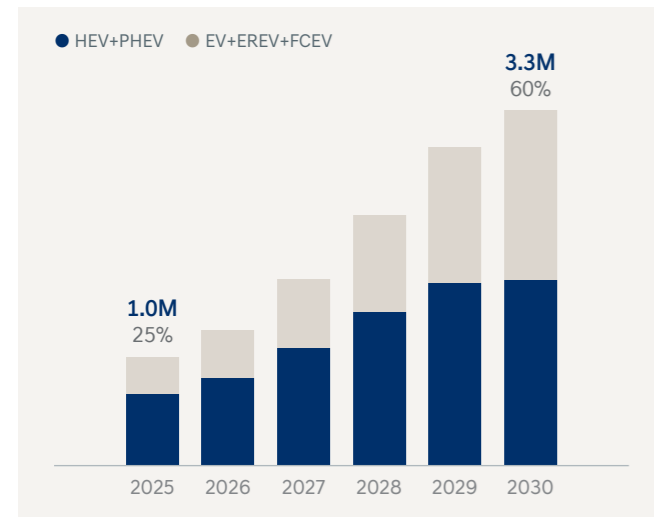
2025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이브리드(HE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을 통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50개 이상의 계열사와 연계된 수직계열화 구조와 전기차(EV)·하이브리드(HEV)·수소차(FCEV)를 아우르는 전동화 라인업은 다양한 고객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총 961,812대의 전동화 차량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현대자동차는 원소재 채취부터 부품 제조, 차량 생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ISO 14040/14044 국제표준 및 EU PEF의 EF 3.1 방법론을 기반으로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차종의 83%에 해당하는 41개 차종에 대해 Full-LCA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전기차·하이브리드 모델은 물론 상용 차종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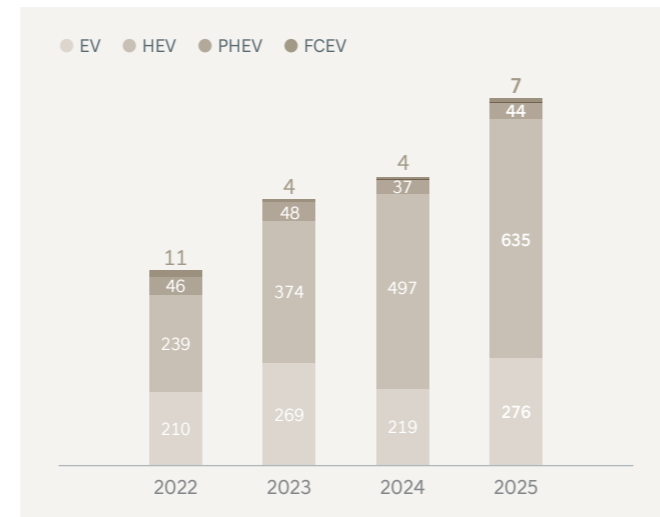
평가는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산성화, 부영양화, 수자원 부족, 자원고갈 등 13개 환경지표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제조 과정 에너지 사용 등은 사업장 실측 데이터를 적용하고 전기차 운행 단계는 미래 전력 생산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했습니다. 현대차의 LCA 프로세스는 외부 인증기관 TÜV Rheinland로부터 국제 표준 적합성 인증을 취득하여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동화 차량 판매 목표 (판매량 및 판매 비중)*



* 2025 CEO Investor Day 발표 기준

글로벌 시장 전동화 차량 판매량 (단위: 천 대)



* 2025년 도매 기준

EV 다양한 전동화 라인업 기반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 입지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

275,669대

HEV, PHEV 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통해 전체 실적 견인의 핵심 동력

679,017대

FCEV 수소 기술 경쟁력 기반의 인프라·밸류체인 구축으로 장기적 사업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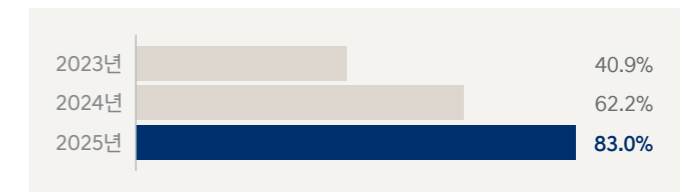
7,126대

* 2025년 도매 기준

LCA 항목 구성

생태계 영향	자원 사용	인체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GWP) 산성화(AP) 미세먼지(PM) 부영양화(토양, 담수, 해양) 오존층 파괴(ODP) 광화학 오존형성(PO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고갈 (광물, 화석 연료) 토지이용 수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리 방사선

3개년 Full-LCA 수행 차종 판매 비율



고객경험 혁신

현대자동차는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을 중심으로 고객경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장 없는 무결점 품질의 자동차’라는 품질철학 아래, 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운전자는 물론 승객과 보호자 보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Life Cycle의 모든 영역에서 품질을 관리하여 고객의 요구가 상품·개발 단계로 지속적으로 피드백되고 품질안전 문제의 대형화를 예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품질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목소리(VoC)를 청취하고, 차량 이용 주기 전반에 걸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최고의 ‘CAR-LIFE’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브랜드 관리 및 윤리적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충돌 안전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각국의 교통사고 데이터와 함께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 및 품질 부문에서 축적된 여러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여, 보다 복합적인 사고 유형에 대응하고 그 결과를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복합 충돌 에어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실차 충돌 시험에서 탑승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27종, 170세트의 인체 모형(더미, Dummy)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충돌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승객 안전 성능 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안전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충돌안전 평가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등 전기차 모델이 최고 등급인 TSP+(Top Safety Pick +)를 획득했으며, 강화된 평가 기준 하에서도 충돌안전 및 사고예방 성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을 기반으로 한 전동화 모델들은 전면·측면 충돌 평가 등 주요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전동화 시대에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NCAP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주요 지역별 대표적인 차량 안전 평가 기관 으로부터 안전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는 넥쏘, 아이오닉 9, 팰리세이드 등 24여 개 차종이 한국, 유럽, 미국, 호주 등 각국에서 최고 등급인 5-star를 획득했습니다.

2025년 NCAP 안전성 평가 선정 차량

지역명	5-star(1등급) 획득 차종	비율 ¹⁾	평가대상 차종 수
한국	넥쏘, 아이오닉 9, 팰리세이드	100%	총 3개 차종
유럽	넥쏘, 아이오닉 9	66.7%	총 3개 차종
미국	팰리세이드, 싘타크루즈, 아이오닉 6 포함 23개 차종	76.7%	총 30개 차종
호주	아이오닉 9, 팰리세이드	66.7%	총 3개 차종

¹⁾ NCAP 평가는 매년 출시된 모든 브랜드별 신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NCAP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평가대상 차종 대비, 5-star 등급(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차종의 비율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목소리(VoC)를 청취하여 최고의 ‘CAR-LIFE’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대고객경험지수(HCXI) 71.9점, 해외 판매 고객 만족도(NPS) 93.4점 등을 달성하며 고객만족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전 과정 품질관리와 편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분	단위	2024년	2025년
고객만족도 - 현대고객경험지수 (HCXI)	점수	71.0	71.9 ¹⁾
국내 정비서비스 만족도 (HCXI)	점수 (순위)	73.0 (1위)	73.3 (1위) ²⁾
해외 판매 고객 만족도 (NPS)	점수 (실시국가)	93.8 (34개국)	93.4 (34개국)
해외 정비서비스 만족도 (NPS)	점수 (실시국가)	82.3 (34개국)	84.3 (33개국)
외부기관 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N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³⁾

¹⁾ 판매 및 서비스 만족도 종합 점수

²⁾ 직영/블루핸즈 종합점수 평균값

³⁾ 컴팩트 승용, 중형, 준대형, 대형, 컴팩트 RV, 대형 RV, 전기차

<p>현대고객경험지수(HCXI)</p> <p>71.9 점</p> <p>현대고객경험지수(HCXI), 2024년 71.0점에서 2025년 71.9점으로 개선</p>	<p>국가고객만족도(NCSI)</p> <p>1 위</p> <p>국가고객만족도(NCSI) 평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전 부문 1위 달성</p>
---	---

지속가능한 공급망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개선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과 고충처리 절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공급망 전반의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을 식별·예방·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망 내 실질적 영향과 위험을 중심으로 공시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공급망 지속가능성 전략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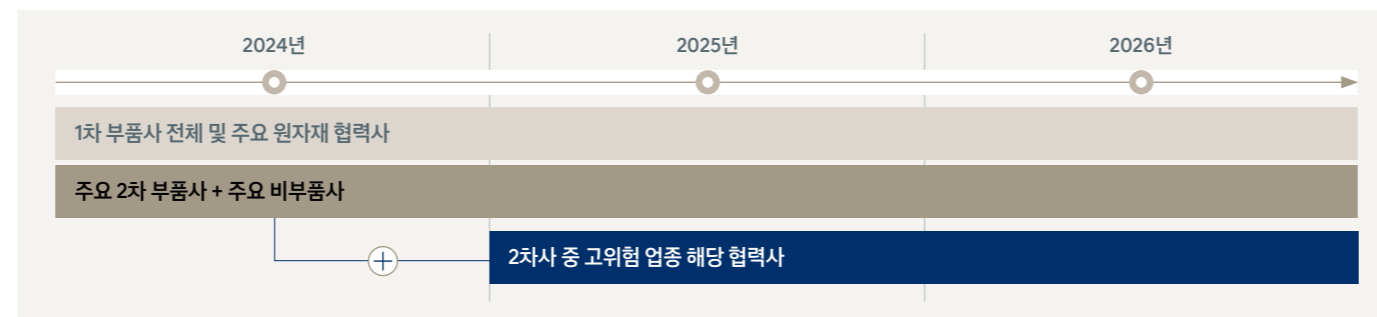
현대자동차의 이해관계자는 차량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서비스 및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고객, 규제기관, 지역사회 등을 포함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함께 품질·기술 경쟁력 확보, 안정적 공급망 운영, 공정거래 및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등 위험 및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망 관리 전략을 도출하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협력사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관리 전략은 ESG 측면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품질·비용·납기 안정성 확보와 사업 연속성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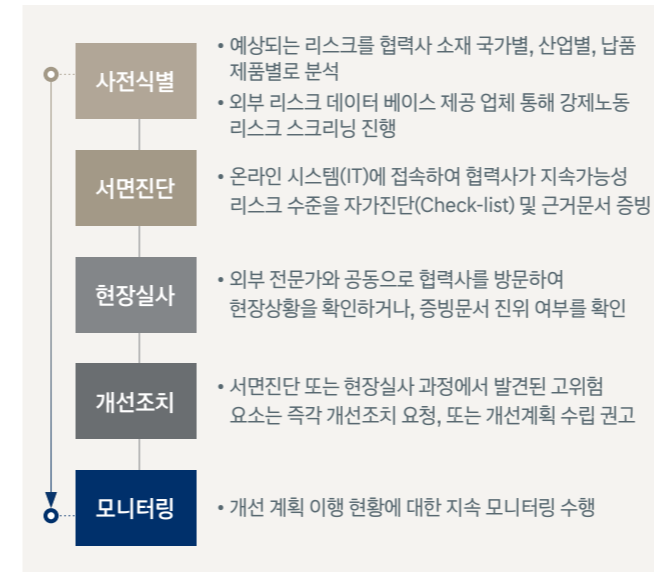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 수행 3개년 로드맵

현대자동차는 전체 1차 부품사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사의 경우, 환경·인권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식별된 도장, 도금, 주조 및 단조 업종을 주요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종 2차사와 거래하는 1차사에게는 2차사 실사 등 강화된 하위공급망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 수행 3개년 로드맵



리스크 진단·실사 단계



- 2,086개사 서면진단 실시
- 127개사 현장 실사 실시
- 리스크 식별 협력사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완료
- 고위험 협력사 대상 단계적 리스크 저감 조치 적용



책임 있는 광물 관리

책임광물 관리 로드맵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 책임광물 관리의 단계별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광물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과 코발트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2025년에는 관리 대상 광물을 22종으로 확대하고, 중대성 평가를 통해 해당 광물 중 니켈, 리튬, 천연흑연 등 배터리 소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광물 정책을 개정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선정된 중점 관리 대상 광물에 대해 공급망 서면/현장실사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중점 관리 대상 광물을 기타 광물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산·제련소 현장실사

현대자동차는 2025년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실사 기관(RCS Global)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니켈·코발트 광산 및 제련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사는 OECD 실사 가이드, EU 배터리 규정(EUBR), IRMA 책임광물 기준(Critical Requirements)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인권·노동·환경·거버넌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사 결과를 협력사에 공유하고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이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쟁광물(3TG)·구리·리튬·흑연 관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가평가(SAQ)를 병행하여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다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현대자동차는 인권·노동과 관련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 전 세계 사업장을 포함한 공급망에서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4대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및 소비자)를 정의하고, 매년 인권경영 과제를 선정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업장 및 협력사 인권 실사를 시행하여 잠재적·실재적 인권 리스크를 발굴하고 적합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채용 전략을 시행하고, 임직원 핵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와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가진 임직원이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방향성 및 전략

현대자동차는 국제 인권·노동 기준에 기반한 글로벌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교육, 선언, 실사, 구제의 5개 영역 중심의 체계를 운영하며, 투자 및 공급망 의사결정 과정의 사전 검토와 교육·고충 관리 체계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현대자동차는 주요 비즈니스와 법인별 사업의 연관성, 관리체계, 리스크 수준을 종합 고려해 인권 실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완성차 제조 공급망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총 4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제3자 심사기관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사업장 인권 리스크 평가 (단위: %)

구분	결과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 ¹⁾	100
사업장 리스크 있는 사업장 비율 ²⁾	6.4
개선조치 및 개선활동 이행 비율	100

¹⁾ 인권 리스크 평가 수행 사업장 수 /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사업장
 * 본사, 권역본부 및 국내외 생산, 판매, 연구 사업장(해외의 경우, 본사 지분 50%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
²⁾ 현장실사 수행 결과 리스크(non-conformance)가 식별된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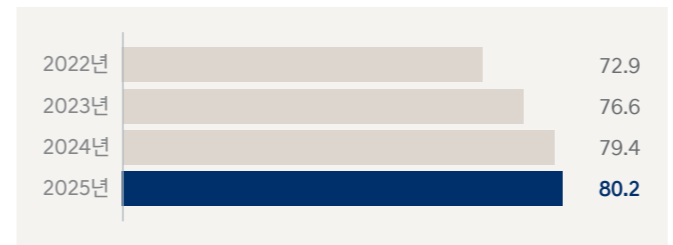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인권 리스크 검토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2024년부터 공장 신·증설 관련 투자 심의 절차에 ESG 리스크 스크리닝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IFC 성과표준과 적도원칙 등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인권을 포함한 주요 환경·사회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EV 배터리 공급망 투자 심의에도 해당 절차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조직문화 진단

현대자동차는 매년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조직문화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임직원 참여율 87%, 평균 점수 80.2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조직구조와 프로세스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역할과 책임(R&R) 명확화 및 협업 문화 구축을 추진했으며, 구매본부는 관련 문항 점수가 전년 대비 3.4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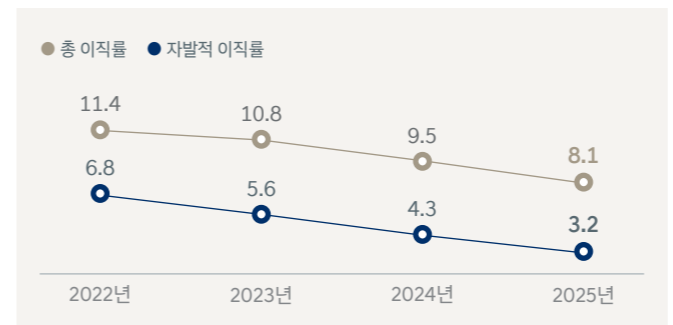
조직문화 진단 결과 (단위: 점)



직원 만족도 및 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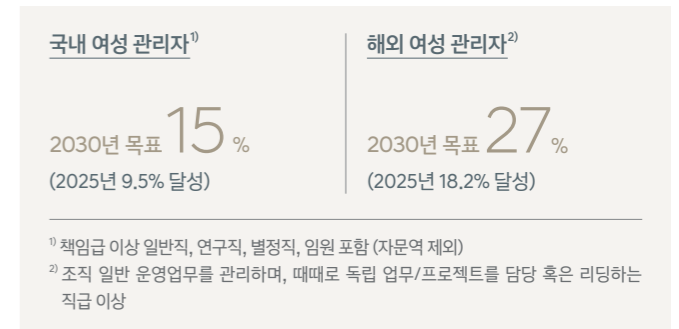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의 건강성과 인재 유지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자발적 이직률은 2022년 6.8%에서 2025년 3.2%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직률 (단위: %)



여성관리자

2030년까지 국내 여성 관리자비율 15%, 해외 여성 관리자비율 27%라는 도전적인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다양성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

현대자동차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이사회에는 3명의 외국 국적 이사(호세 무뇨스, 도진명, 벤자민 탄)와 4명의 여성 이사(진은숙, 이지윤, 최윤희, 김수이)가 있습니다.



CSV 이니셔티브

현대자동차는 'Hyundai Continue'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회 임팩트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이니셔티브인 'Hyundai Continue'는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세대 세 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빌리티 비즈니스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사업장은 물론, 글로벌 사업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며 지구와 공존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제공하며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Earth) 아이오닉 포레스트



현대자동차는 2016년부터 미국, 브라질, 독일,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 등 13개국에서 숲을 조성하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을 신규 구축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협력하여 울진 산불 피해지 생태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 구축한 아이오닉 5 드론 스테이션과 연계 운영하여 효과적인 생태계 복원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 1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으며, 베트남에서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메콩강 삼각주의 맹그로브 숲 복원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총 약 22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나무 심기, 산불 피해지 복구 등 폭넓은 친환경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

-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 신규 구축
- 131만여 그루 나무 식재(국내, 미국, 베트남, 인도 등)
- 10주년 기념 '나무 특파원' 홍보 캠페인 추진

모빌리티(Mobility) 착용로봇(X-ble MEX)¹⁾ 활용, 보행 재활 지원



현대자동차는 로봇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반신 마비 환자의 재활을 지원하고, 이동약자의 이동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재활원 및 서울아산병원과 협력하여 의료용 착용 로봇 '엑스블 맥스(X-ble MEX)'를 활용한 재활 치료 및 공동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공동 연구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완전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치료사의 부담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세계 장애인의 날에는 재활 치료 참여자의 KBS 뉴스 기상 예보 출연 캠페인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과 기술의 포용적 가치를 확산했습니다.

¹⁾ X-ble Medical Exoskeleton



2025년 주요 성과

- 국립재활원·서울아산병원 협업 기반 X-ble MEX 재활 치료 연구 완료 및 논문 공개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3등급 의료기기 인증 취득 (2025년 11월)

미래세대(Hope) 현대 호프온휠스



현대 호프온휠스는 1998년부터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에서 시작되어 28년째 운영 중인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025년까지 미국 내 누적 기부금은 약 2억 7,700만 달러에 달하며, 미국 내 3대 소아암 기부 단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차 딜러가 판매 대수 1대당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현대차가 기부금을 더하는 공동기금 형태로 소아암 연구와 치료, 일상회복, 소아암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호주와 한국에 이어 2025년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하며, 손바닥 자국(핸드프린트) 안에 날개, 하트, 나뭇잎을 더해 희망(Hope), 사랑(Love), 회복(Recovery)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딜러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활동을 확대해 소아암 치료 및 연구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

- 미국 현대 호프온휠스 27주년 기념 2,700만 달러 기부
- 98개 기관, 108명 연구진 통해 총 45건 논문 발간 지원
- 캐나다, 멕시코 신규 런칭으로 글로벌 누적 3억 2천만 달러 모금
- 소아암 연구·치료 및 인식 개선 활동 지속

